

## 45億の夢、一つになったアジア

### 45억의 꿈, 하나 된 아시아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閉幕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



第17回、仁川アジア競技大会が16日間の熱戦を終え、大詰めの幕を下ろした。今回の大会は、アジアオリンピック評議会(OCA)45の加盟国がすべて参加した初のアジア大会となった。その規模にふさわしく、世界新記録17個、アジア新記録34個、大会新記録116個など豊かな成果を収めた。

順位は競技場の中だけで輝き、いまとなっては手にしたメダルよりも、勝者と敗者が共に握り合う手と手がかもって輝いている。アジアの若者らは、仁川の空の下で共に息づき、力と技量を思う存分繰り広げた。共に汗を流し合いながら、私たちは皆家族であり、友人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肌の色が違い言語、そして宗教が違っていても選手・役員の方1万3千人余りは、皆ひとつになった。移住労働者たちと多文化家族たちは、まるで実家の家族を迎えるかのように胸がいっぱいになる思いで熱烈に歓迎した。これを機に故郷から訪れた選手たちへの応援は、大きな喜び

となり、エネルギーの源となった。

今回の仁川アジア競技大会は、アジアのスポーツ均衡発展の出発点となった。仁川市は、この8年間'仁川ビジョン(Vision)2014'を進行し、今回の大会がスポーツ強国を中心とした祭りではなく、皆のための祭りとして昇華させた。

また、今大会は、南北の和解の場ともなった。北朝鮮の最高位級関係者が仁川を訪問、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をはじめ、韓国政府人事との接触を実施し、閉幕後帰国した。'平和の息づかい、アジアの未来'という大会スローガンにふさわしく、仁川が南北和解の突破口となる平和都市であることを改めて確認した。

2014AGの聖火は消えたが、仁川は世界平和の熱い炎で永遠に燃え続けるだろう。すでに全アジアは、ここ仁川を記憶してくれるだろう。2018年第18回アジア競技大会は、インドネシア・ジャカルタで開催。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6일간의 열

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첫 아시안게임이었다. 규모에 걸맞게 세계 신기록 17개, 아시아 신기록 34개, 대회 신기록 116개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순위는 경기장 안에서만 빛난다. 이제 목에 건 메달보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마주 잡은 손이 더 빛난다. 아시아 젊은이들은 인천의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숨을 들이마시며 힘과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함께 맘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 가족이며 친구임을 확인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 그리고 종교가 달라도 선수·임원 1만3천여 명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주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은 친정 식구 맞이하듯 가슴 벅차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모처럼 고국에서 온 선수들을 향한 응원단은 모국 선수들에게 커다란 기쁨이자 에너지원이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스포츠 균형발전에 시발점이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8년 동안 '인천 비전(Vision) 2014'을 진행해 이번 대회가 스포츠 강국 위주의 잔치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승화 시켰다.

이번 대회는 남북한 화해의 현상이 되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을 방문,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인사와 접촉을 갖고 폐막식을 본 뒤 돌아갔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란 대회 슬로건에 걸맞게 인천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평화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4AG의 성화는 꺼졌지만 인천은 세계 평화의 뜨거운 불로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제 아시아는 인천을 기억할 것이다. 2018년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김민영 편집장

김민영(김민영)편집장 · gem0701@hanmail.net

### Photo News



“私きれい~???”

“저 예뻐요~???”

2014仁川·中国文化観光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した少女が、和服の着付け体験をしている。浴衣と伝統傘をさすと、放送リポーターが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近づいて質問した。“和服を着てみてどうですか?” “とっても良いですね。”少女の答えは短く、日差しに眩しいほど輝く少女の笑顔は、照れくさそうだ。レポーターの質問は続く。“どんな風にいいんですか?” “...”しばらく会話が途切れた。

他の国の服を着てみるのは、いつとなく見慣れない不思議な体験。試着を通して文化をのぞいてみることもできる。少女は心の中で答えているようにみえた。“ただ、私がかっこいいのかな? よく似合っているのかな? 気になりますね。私きれいですか?”

2014인천·중국문화관광페스티벌에 참가한 소녀가 일본 옷 입기 체험을 하고 있다. 유카타와 전통우산 가사를 쓰자 방송리포터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옷 입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소녀의 답은 짧고 햇살에 눈이 부신 소녀의 미소는 수줍다. 리포터의 질문은 이어진다. “어떻게 좋아요?” “...” 잠시 대화가 끊긴다. 다른 나라의 옷을 입어보는 것은 언제나 낯설고 신기한 체험이다. 옷을 통해 문화를 엿보기도 한다. 소녀는 마음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제가 예쁜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요. 저 예쁘가요?”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편집장 · gem0701@hanmail.net



열정의물결, 이제 시작이다!  
情熱の波, いよいよはじまる!

## 2014 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 主催 아시아장애자올림픽위원회(APC)
- 主管 2014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組織委員会
- 場所 仁川広域市及び協力都市(安養,河南)
- 参加規模 42ヶ国 6,000余名(選手団 4800名,メディア 1200名)
- SNS blog.incheon2014apg.org
- Website www.incheon2014apg.org

- 주최 아시아장애자올림픽위원회(APC)
- 주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장소 인천광역시 및 협력 도시(안양, 하남)
- 참가규모 42개국 6,000여명 (선수단 4800명, 미디어 1200명)
- SNS blog.incheon2014apg.org
- 홈페이지 www.incheon2014apg.org

# 多文化時代の解決策は、 '愛情や理解'ではないでしょうか?

## 다문화시대의 해법은 '사랑과 이해' 아닐까요?

국제고 다문화 동아리 '다가치'



十人十色の学生たちが集まった。仁川国際高等学校の学生の多文化サークル'多価値'だ。2013年自主サークルとして始まった多価値は、2014年3月に正式なサークルとなり、1期部員の3人と、7人の2期の学生たちで構成されている。

多価値活動の始まりは、中国の多文化教材'多価値ワークブック'の出版からだ。'多価値ワークブック'は、母親が幼いころ耳にし、読んでいた童話や詩や、故事成語を韓国語、英語、中国語に翻訳し、子供たちが簡単に理解できる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書き方、迷路探し、塗り絵、紙工作など、様々な遊び材料と共に、韓国と中国の文化を比較した文化理解の材料も掲載されている。

こうしてつくられた多価値ワークブック、1号と2号が出版され、仁川地域の多文化家庭や教育機関へ提供した。昨年の夏には、仁川市中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多価値こども文化キャンプ>を通じ、子供たちと直接出会う場も設け

られた。それは、冬休みのキャンプに続く、2回目の出会いだった。中国、ベトナム、日本に分かれ、3日間行われたキャンプでは、多文化家庭および非多文化家庭の子供たちと共に、各国の言語と文化の体験活動をした。

現在、多価値サークルでは、多文化単語カードの暦'トルベ・カレンダー'の出版を控えている。トルベ・カレンダーは、壁に掛け、カレンダー兼単語学習版として使用され、一ヶ月が過ぎたカレンダーは、一枚ずつ取って単語カードに活用できる製品として直接開発した商品である。昨年1000部を製作、仁川地域センターや多文化家庭に配布され、以降、利用者アンケート調査を通じて収集した補足点などを考慮し、現在'2015トルベ・カレンダー'を製作中だ。制作されたトルベ・カレンダーは、11月以内には配布される予定だ。

いずれも多文化家庭のための活動とはいえ、実際の過程において、サークル部員たちが学んで行くことも非常

に多い。多文化教材を作り、さまざまな文化に対する関心と理解が高まり、国境を越え子供と共感できる時間を持つこと自体が大切な経験だ。"多様な多文化活動を通じ、様々な文化感受性を習って行くきっかけとなっている。"と語るサークルの会員も多い。

サークルが誕生して一年が緊迫に過ぎ去った。一心になって走ってきた多価値サークルの縁の下には、力強い支援郡がいる。意欲だけ先立ち、まだ中途半端なメンバーを暖かく激励してくださる先生たちに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仁川国際高校の多文化クラブ多価値は、多文化時代の青少年が主軸となり、多文化サークルのモデルになれるよう絶えず努力していくつもりだ。

십인십색(十人十色)의 학생들이 모였다.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이 만든 다문화 동아리 '다(다)가치'다. 2013년 자율동아리로 시작한 다가치는 2014년 3월에 정식 동아리가 되면서 1기 부원 3명과 7명의 2기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다가치 활동의 시작은 중국 다문화 교재 '다가치 워크북'의 출간이었다. '다가치 워크북'은 엄마가 어려서 듣고 읽었던 전래 동화나 시조, 고사성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옮겨 담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따라쓰기, 미로찾기, 색칠공부, 종이 공작 등 다양한 놀이자료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한 문화 이해자료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가치 워크북 1호와 2호로 출간돼 인천지역 다문화 가정과 교육기관에 전달 했다. 지난 여름에는 인천 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가치 어린이문화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겨울 방학캠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다. 중국, 베트남, 일본으로 나뉘어 3일 동안 진행

된 캠프는 다문화 가정과 비(非)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 해보는 활동이었다.

현재 다가치 동아리는 다문화 단어카드 달력인 '돌베 달력' 출간을 앞두고 있다. 돌베 달력은 벽에 걸어 달력 겸 단어 학습 판으로 사용하고, 달이 지난 달력은 한 장씩 떼어 단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직접 개발한 상품이다. 지난해 1000여 부를 만들어 인천지역 센터 및 다문화 가정에 배부했고, 이후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보완점 등을 고려해 현재 '2015 돌베달력'을 제작 중이다. 제작된 돌베달력은 11월 이내로 배부될 예정이다.

모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동아리 부원들이 배우는 것이 더 크다. 다문화 교재를 만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고, 국경을 떠나 어린이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다양한 다문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다"고하는 동아리 회원도 많다.

동아리가 생겨나고 일 년이 숨 가쁘게 흘러간 것 같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온 다가치 동아리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의욕만 앞설 뿐 어설픈 자신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인천국제고 다문화 동아리 다가치는 다문화 시대에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다문화 동아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글: 다가치 부장 주서빈 학생 / 사진: 차지은 기자  
 文: 多価値部長 ジュンビン 학생  
 写真: 차·지은(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주서빈 학생은 초등학교는 중국에서, 중학교는 미국에서 졸업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जुन빈君은, 小學校は、中国で、また中學校は、米国において卒業、以後、韓国へ戻り、現在、仁川国際高等学校に在学中、外国で'韓国人'と呼ばれた経験が、多文化社会に関心を持つきっかけとなった。

### Notice Board

東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来る18日、'ペチン体育大会'に参加する。'ペチン体育大会'は、Facebookグループの「おもしろ研究所」と共に進行するプログラムだ。'汗をかくと反則となる遊び'など、多様で風変わりな種目の運動会が、オリンピック公園ハンドボール競技場で開催される。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8일 '페친제전'에 참여한다. '페친제전은 페이스북 그룹 '재미

난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땀 흘리면 반칙인 놀이'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종목의 운동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다.

南洞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結婚移住女性を対象に生涯教育プログラム'レインボーパスタ教室'を、来る12月30日まで運営する。教育は、仁川東教育支援庁と連携し、地域や民間機関の協力を得て行われる。カリキュラムは、コーヒー理論から焙煎、ハンドドリッブ、さまざまなコーヒー飲料作りなどで構成。今後の地域イベントで移住女性自ら、才能寄付を通じて地域社会のメンバーと

して独り立ちできるように助けていく予定だ。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레인보우 파스타 교실'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 및 민간의 기관들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커피이론부터 로스팅, 핸드드립, 다양한 커피음료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생들은 향후 지역행사에서 이주여성들 스스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江華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毎週

中学入学及び、高校入学教育を支援。移住女性の基礎学力を高め、就業能力を強化するためである。9月から始まった教育は、12月12日まで継続され、教育時間は、毎週月曜日の午前10時から午後5時、火・金曜日の午後1時から午後5時まで。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주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기초학력을 높여 취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9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12월 12일까지 계속되며 교육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韓国生活の 始まり

## 한국생활의 시작

仁川出入国管理事務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ビザの發給、在留許可、永住権の申請など、出入国管理事務所は韓国生活の始まりを意味するところだ。まだ永住権や国籍を取得できていない非韓国人には、信頼できる友とも言える。出入国管理事務所に頻繁に outward、話しを分かち合うことで、韓国の生活は'全て順調'だ。

結婚移民者で構成されたボランティア 23名。この先輩の移民者たちが直接メンタリングに乗り出す。移民者の早期適応プログラムの一環として、毎月第2・第4木曜日に3時間ずつ行われる。中国とベトナム、タイ、フィリピン、ウズベキスタンなど、様々な国籍の先輩たちが、直接韓国生活と言語問題を助けている。ボランティアたちは、メンタリングサービス以外にも、国内外の民間人を案内している。彼らのおかげで、大多数の言語が支援されるが、すべてのボランティアが常に待機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め、予め教育の申し込みをしておくのが良いだろう。

事務所では、韓国社会の構成員として適応し、自立するのに必須的に必要な教育も支援している。0段階から5段階で構成された社会統合プログラムだ。韓国語と韓国文化、韓国社会に対する教育を段階別に分け教育し、一段階ずつ上昇するたびに、試験を受けることになる。

最後の5つ目のステップでは、総合評価に合格することで、履修できる。初めての教育申請では、韓国語の能力を評価し、段階が割り当てられる。韓国語がほとんどできない場合は、0の段階から始め、だんだん難易度を高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もし教育中、個人的な事情で履修不可能な場合には、在籍や履修停止制度を利用し、一時的に中断することも可能だ。

仁川出入国管理事務所のキム・インへさんは、「仁川の場合、他の地域よりも、



特別に申請者が多いんです。今年だけで4,400人ほどの応募者が集まったんですよ。カリキュラム自体が1年以上かかるうえ、段階上昇が厳しく、就学率は30%程度と低い方なんです。」と伝えた。しかし大変なだけあり、体系的なカリキュラムのおかげで、終了後の満足度は相当なものである。

なによりも、すべての課程を修了すると、帰化筆記試験および面接審査が免除され、点数制による居住資格(F-2)の変更時、加算点が付与されるなどの利点が与えられる。教材や講師料などは国が支援している。申し込みは、社会統合情報網(www.socinet.go.kr)を通じ可能。現在2014年の最後の募集が行われており、10月24日まで受付できる。この他にも出入国管理事務所では、中途入国子女を対象にした韓国社会適応教育や、留学生のための生活ガイドなど、さ

まざまな適応プログラムと内国人のための国際結婚案内プログラムなども運営している。

ビザ 발급, 체류허가 업무, 영주권 신청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다. 아직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비(非)한국인에게는 믿음직한 친구와도 같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한국생활은 '탄탄대로'다.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23명. 이 선배 이민자들이 직접 멘토링에 나선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선배들이 직접 한국생활과 언어문제를 도와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멘토링 서비스 이외에도 국내외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 덕분에 대다수의 언어가 지원되지만 모든 봉사자가 항상 상주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무소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0단계부터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교육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육하고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이수할 수 있다. 처음 교육신청을 하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해 단계를 배정받는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 0단계로 시작해 차차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다. 만약 교육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적이나 이수 정지 제도를 이용해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김인혜 씨는 "인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특히 신청자가 많다. 올해만 4400명 정도의 신청자가 몰렸다. 커리큘럼 자체가 1년 이상 걸리는데다 단계 상승이 엄격해 이수율은 30%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 덕에 이수 후 만족도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가 면제되고,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 변경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재나 강사비용 등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2014년도 마지막 모집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 적응교육, 유학생을 위한 생활안내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과 내국인을 위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写真 -차·지운(차지은)기자·minsable@hanmail.net

**富平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来る17日、法務部の早期適応プログラムである'ハッピースタート'を行う予定だ。ハッピースタートプログラムは、早期適応指導や夫婦教育、遵法教育など、韓国社会への適応を支援するプログラム。午後1時から5時まで、ハッピースタートプログラムを修了していない初期入国結婚移民者と家族が参加可能だ。(032-511-1800~1)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7일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조기적응 멘토링

및 부부교육, 준법교육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桂陽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結婚移民者のための運転免許移動学科試験を実施する。より多くの移住女性が受験できるように、訪問式の移動学科試験は、仁川道路交通公団、桂陽警察署外事係と延世自動車学校が連携支援する。試験は、3月から隔月で実施されており、毎月1日から20日まで参加者を募集する。次の学科試験の日程

は、11月だ。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 이동학과시험을 실시한다.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학과시험은 인천도로교통공단, 계양경찰서의 사계 및 연세자동차학원이 연계 지원한다. 시험은 3월부터 격월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음 학과시험 일정은 11월이다.

**延寿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2014 글로벌·한남무뎀체육大会'を開催。今

回の体育大会は、多文化家庭のメンバーが体をぶつけ合いながら、共同体意識を涵養することができる場となった。各種イベントや抽選で、楽しみ盛り沢山の体育大会は、総150家庭、300人余りが参加した。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일 '2014 글로벌한남무뎀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몸을 부딪히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이다. 각종 이벤트 및 경품추첨으로 즐거움을 더한 체육대회는 총 150가정, 300여명이 참여했다.

# アジア大会の競技場に行く

##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가다

多文化女性が見たアジア大会 다문화 여성이 본 아시안게임

仁川の秋、韓国人と多文化人が‘アジア人’として一つになる季節。45億のアジア人の祭典、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が、至る4日に閉幕した。アジア大会が行われている間、仁川を訪れたアジア人たちは、お祭りを楽しんだ。自国を応援し、また韓国を応援し、不人気種目を応援していた彼らの声は、競技場をいっぱい埋め尽くした。ゲームが決勝に近づくほど、その声はさらに大きくなった。彼らの声は、いまや障害者アジア大会へとつながっていく。

“さきほどタイとイラクの銅メダル戦を見て来たんです！惜しくもタイが負けましたが、韓国を応援するため、急いで飛んできました。” 至る2日の男子サッカー決勝で出会ったキム・キング(38, タイ, Kim King gae)さんの言葉だ。タイとイラクは銅メダルをかけて、午後5時からサッカー専用スタジアムで試合が行われた。残念ながら、タイは1:0で敗れた。キム氏は試合が終わるやいなや、南区文鶴洞にある文鶴競技場に駆け付けた。

“今回のアジア大会は、各競技場が近くにあって、さまざまな試合を見ることができんです。動線が便利でとても良いんです。施設も広くて、どこへでも動くのが簡単。桃園駅から文鶴競技場駅まで、公共交通機関に乗ってすぐ来たんです。思ったより早く来たんですよ。”

タイ-イラク戦が終わったのが7時。続いて8時に始まる決勝戦を見るために急いで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さらに悪いことには、サッカーを見に来た観客の人数が相当なもので、時間に遅れてしまうと入場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状況にさらされていた。しかし金氏と弟さんは、時間に間に合い入場できた。

“タイでもアジア大会が開催されたんですよ。タイにいるときも、アジア大会を見て廻りました。あの時は、自分の国なのでタイの選手たちを応援して楽に見ていたんですが、今は韓国にいるじゃないですか。タイの選手を見かけると、以前よりも嬉しかったですね。タイが負けても韓国を応援することができるし、またより多くの試合に興味をそそられました。試合はい



つ見ても楽しめます。”

南と北の試合は緊張感の中で続いた。いつのまにか前半が終了、そして休憩時間。キムさんと弟さんは、携帯電話のカメラを出し、観戦記念写真を撮った。ボールに刻んだタイの国旗もよく見えるようにカメラを合わせる。アジア大会を楽しむ姿は、どのアジア人もまったく同じ。一生懸命応援したり、残念がったり、彼らだけの楽しみを残し、思い出を刻んでいく。金氏のSNSプロフィール写真は、いつのまにかサッカー競技場を背景にした記念写真に変わっていた。

“チケットの価格も負担になりませんでした。手頃な価格でアジアの祭りを観覧することができてとっても良かったです。そしてもうすぐ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が開かれますよね。その時も是非観覧するつもりです。”

인천의 가을, 한국인과 다문화인이 ‘아시아인’으로 하나가 되는 계절이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4일 폐막했다.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온 아시아인들이 축제를 즐겼다. 자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응원하고, 비 인기 종목을 응원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운다. 게임이 결승에 다가갈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이어진다.

“방금 태국하고 이라크 동메달 전을 보고 왔어요! 태국이 졌

들의 수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면 입장이 늦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씨와 동생은 제 시간에 맞춰 입장할 수 있었다.

“태국에서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었어요. 태국에 있을 때도 아시안게임을 보러 다녔죠. 그때는 우리나라니까 태국선수들을 응원하며 편하게 봤었는데, 지금은 한국이잖아요. 태국선수들을 보면 훨씬 반가워요. 태국이 지더라도 한국을 응원할 수 있어 더 많은 경기에 흥미가 생기기도 했어요. 경기는 언제 봐도 재미있어요.”

남과 북의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계속됐다. 어느덧 전반전이 종료되고 휴식

시간, 김 씨와 동생은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경기관람 기념사진을 찍었다. 볼에 새긴 태국 국기도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맞춘다. 아시안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어느 아시아인이 다 똑같다. 열심히 응원하고, 아쉬워도 하고, 그들만의 즐거움을 남기고, 추억한다. 김씨의 SNS 프로필 사진은 어느새 축구경기장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티켓가격도 부담이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아시아의 축제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곧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꼭 관람하러 갈 거예요.”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写真-チャ・ジウ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종합국가순위

순위 Rank	국가 NOC	G	S	B	합계 Tot.	순위 Rank	국가 NOC	G	S	B	합계 Tot.
1	중국 CHN	151	108	83	342	11	우즈베키스탄 UZB	9	14	21	44
2	대한민국 KOR	77	71	84	234	12	바레인 BRN	9	6	4	19
3	일본 JPN	47	76	77	200	13	홍콩 HKG	6	12	24	42
4	카자흐스탄 KAZ	28	23	33	84	14	말레이시아 MAS	5	14	14	33
5	이란 IR	21	18	18	57	15	싱가포르 SIN	5	6	13	24
6	태국 THA	12	7	28	47	16	몽골 MGL	5	4	12	21
7	북한 PRK	11	11	14	36	17	인도네시아 INA	4	5	11	20
8	인도 IND	11	10	36	57	18	쿠웨이트 KUW	3	5	4	12
9	대만 TPE	10	18	23	51	19	사우디아라비아 KSA	3	3	1	7
10	카타르 QAT	10	0	4	14	20	미얀마 MYA	2	1	1	4



# 子供を育てるには、町よりも‘福祉’

##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보다 ‘복지’

出産・育児サービスを調べてみよう 출산・육아 서비스 알아보기



‘子供を育てるのには、町が必要’という言葉がある。子供を産んで、育て、教育するためには、本当にひとつの町が必要だが、最近のような時代に、都市においては町という概念すら見慣れ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っても心配は、ご無用。母親のため、また子供のための出産・育児サービスが準備されている。それは、町よりもっと大きな国家の福祉のメリット、是非逃さず味わってみよう。

すべての妊婦は、妊娠をすると、無料で健康管理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最寄りの保健所に登録するだけで無料産前検査をし、妊娠早期診断と血液検査、肝炎検査などの健康診断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出産準備教室のような出産に対する教育も受けられる。そこでは妊娠してから3ヶ月まで葉酸剤の支援があり、妊娠20週以上の妊婦には鉄剤をサポートする。

また、栄養的に危険要因のある妊婦

や、乳幼児の場合には、‘栄養プラス事業’のメリットが受けられる。自分の食生活を管理できるように栄養教育と共に、お米や野菜などの食品サプリメントを支援する事業だ。妊婦の健康管理と‘栄養プラス事業’は、全国の保健所(仁川甕津郡を除く)で申請すること

ができ、栄養プラス事業は、必要な書類を持参し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費用や管理などが気になる子供の予防接種も、国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新生児から12歳までの国家予防接種の12種のワクチン費用を支援する制度。保健所や近くの指定医療機関で、無料接種が可能であり、指定医療機関は、インターネットの予防接種ヘルパー(<http://nip.cdc.go.kr>)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ほか、乳幼児健診、歯と目のケアなどのサービスも受けられるが、保健所ごとに実施内容が異なるため、あらかじめ確認しておくのがよい。

保育料支援も欠かせない重要事項だ。小学校に入学する前の幼児は、保育所や幼稚園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国家から各年齢に合った保育料と幼児の学費が支援される。世帯所得水準に関係なく、申請可能であることが大きな利点だ。支援対象者として選定された場

合、‘子供サランカード’が発行され、それで保育園の毎月の保育料を支払えばよい。

この時、親が負担する費用と、政府が負担する費用も全て支払われる。保育園や幼稚園を利用していない児童については、親の養育費の負担軽減のための家庭内養育手当をサポートする。保育料支援申請は、住所地の管轄邑、面事務所や洞の住民センター、または福祉サイト([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で可能だ。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데는 정말 한 마을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에서는 마을이라는 개념조차 낮설다. 그렇다고 걱정하진 말자. 엄마를 위한, 아이를 위한 출산・육아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마을 보다 큰 국가의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리보자.

모든 임신부는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무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 조기진단과 혈액검사, 간염 검사 등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준비 교실과 같은 출산대비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해주고,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에게는 철분제를 지원한다. 또한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나 영유아의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함께 쌀이나 채소 같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부 건강관리와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 보건소(인천 옹진군 제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비용과 관리가 걱정되는 아이들 예방접종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부터 만 12세까지 국가예방접종 12종 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소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의료기관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 치아 및 시력관리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마다 실시 여부가 달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육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각 연령에 맞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복지포사이트([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写真 -차·쥬원(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 戦争に始まった世界の味、ベトナムライスヌードル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의 맛, 베트남 쌀국수



東南アジアでは、よく食べるライスヌードルではあるが、その中でもベトナムのライスヌードルの人気が格別。ベトナムのライスヌードルのレシピは、思ったよりも簡単だ。ふやかして米粉を薄く伸ばし、乾燥した後、細く切って麺を作る。スープにもやし、唐辛子、コリアンダー、タマネギなどを入れ、独特の香りを醸し出す。地域と材料に応じて調理法が異なるが、最も大衆的なのが、やはり牛肉ライスヌードル。牛肉の旨みが染み出てコクをプラスするからだ。

‘ライスヌードル’と言えば、ベトナムを思い起すほど、ライスヌードルはベトナムの味を代表している。世界の料理に成長したベトナムライスヌードルに、悲しい歴史が込めら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人は数少ない。1880年の半ば、ベトナム北部ハノイを占領したフランス軍が、牛肉のレシピを伝えたことが、今のライスヌードルとなった。

民俗食であったライスヌードルに牛肉のレシピが加わり、作られたものである。ライスヌードルの名前‘pho’も、フランス軍の食事を意味する‘ポトフ(pot au feu)’のフ(feau)に由来したとある。ベトナムが南北に分断された1950年代には、南に降りたハノイの人々が、ホーチミンで今のライスヌードルを売り始め、

それがベトナム全土に広がっていった。韓国には2000年代の初め、健康食品の流行と共に上陸した。低カロリーと淡泊な味、米を主食とする韓国人にとってライスヌードルは、抵抗なく楽しめる外国料理となった。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즐겨먹는 쌀국수지만 그중에서도 베트남 쌀국수가 인기다. 베트남 쌀국수의 레시피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불린 쌀가루를 얇게 펴 말린 뒤 가늘게 썰어 면을 만든다. 국물에 숙주, 칠리 고추, 고수, 양파 등을 넣어 독특한 향을 낸다. 지역과 재료에 따라 조리법이 다양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역시 소고기 쌀국수다. 소고기의 진한 맛이 우리나라와 감칠맛을 더하기 때문이다.

‘쌀국수하면 베트남이 생각날 정도로 쌀국수는 베트남의 맛을 대표한다. 세계인의 요리로 성장한 베트남 쌀국수에 아픈 역사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880년 중반,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쇠고기 요리법을 전해주면서 지금의 쌀국수가 생겨났다. 민속음식인 쌀국수에 쇠고기 요리법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쌀국수의 이름 ‘pho’도 프랑스군의 식사를 뜻하는‘포 투 피(pot au feu)’의 피(feau)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된 1950년대에는 남쪽으로 내려간 하노이 사람들이 호찌민에서 지금의 쌀국수를 팔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국에는 2000년대 초 건강식의 유행과 함께 상륙했다.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쌀국수는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외국음식이 되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写真 -차·쥬원(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食べ物で味わう多文化

# 誠実なシュクロンさんの仁川暮らし

## 성실한 슈크론의 인천살기



外国人労働者たちは、F9ビザ(非熟練労働者)として、コリアンドリームを夢見、入国してくる。仁川産業現場のあちこちでは、言語と文化の違いを狭め、誠実に働く外国人労働者が少なくない。インドネシアから来たシュクロンさんもそのなかの一人。産業現場で重要人物となった彼の笑顔は、現場でより輝いている。

外国人 근로자들은 F9비자(비숙련노동자)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다. 인천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좁히며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슈크론도 그중 한명.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그의 미소는 현장에서 더욱 빛난다

### 韓国語が重要なんです

南洞工団に所在する(株)韓日エンジニアリングの現場で出会ったシュクロンさんは、作業のパートナーと呼吸を合わせている。普段はいつも笑顔だが、作業中の表情は真剣だ。視線は作業する手に固定されている。締めて回して金づちでかんと、よどみなく作業を続けていく。

彼は2007年11月、インドネシアからや

って来た。見知らぬ韓国にF9ビザで入国後、仁川に住み着いた。今働いているところが、韓国での最初の仕事場。寮生活をしながら熱心に溶接を学んだ。4年10ヶ月の期間を満し、2012年に出国。そして、3ヶ月後の2012年12月、最初の仕事場に戻ってきた。現場の従業員17人のうち唯一の外国人労働者だ。

彼を7年間見守っているイ・ギン(株)日韓エンジニアリング社長は言う。“最初、外国人労働者は、シュクロンさんともう1人いたんです。しかし、そのもう一人は、途中で他の会社に行ってしまったんです。ところがシュクロンさんは、非常にまじめで継続してここで働いてくれているんですよ。”微笑ましい表情で誉めことばを続ける。

外国人労働者が韓国に入り、最初の会社との労働契約期間の4年8ヶ月を、完全に満たすのはなかなか容易ではない。他の会社の給料が少しでも良ければ、荷物をまとめて移動するのが日常茶飯事。しかし、シュクロンさんは、そうはしなかった。

仲間のみんなが彼を暖かい眼差しで賞賛する。職場の上司もまた、シュクロンさんへの賞賛を加えた。“彼は、中小企業中央会仁川地域本部から授与される、外国人労働者の模範社員賞を2回も受けているんですよ。”その賞は、会社で共に働く仲間たちが認めてくれたようなもので、それは非常に意味深い価値をなす。仲間たちの誉めことばにもシュクロンさんの表情は、いつもと変わらず落ち着いている。

“韓国語がまだ上手にできず、仕事をするのに困難なことも多々あるんです。早く上手になりたいんですが、インドネシアには、パツパツがないんですよ。ゆったりとしてみえますが、それでも入念にやっています。”

韓国行きを選択した外国人労働者は、

韓国に入国前、母国で事前に韓国語を学び、試験を受ける。しかし、彼は現場での仕事をより効率よくするためには、韓国語を学ばなければならず、その時間を増やすべきだと言う。

### 한국어가 중요해요

남동공단 소재 (주)한일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만난 슈크론은 작업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평상시에는 늘 미소 짓지만 작업하는 내내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시선은 작업하는 손에 고정되어 있다. 조이고 돌리고 망치로 팡팡~거침없이 작업을 이어간다.

그는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낯선 한국어로 F9비자로 들어와 인천에 터를 잡았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한국에서의 첫 직장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용접을 배웠다. 4년 10개월을 모두 채우고 2012년 출국을 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첫 직장으로 다시 왔다. 현장 직원 17명 중 유일한 외국인 근로자다.

그를 7년 째 지켜본 이기군 (주)한일엔지니어링사장은 말한다. “처음엔 외국인 근로자는 슈크론과 1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중간에 다른 업체로 갔어요. 슈크론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요.” 흐뭇한 표정으로 칭찬을 잇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첫 회사와의 근무계약기간인 4년 10개월을 온전히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업체에서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면 짐을 싸서 옮기는 것이 다반사다. 슈크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든 동료들이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칭

찬한다. 한 직장 상사가 슈크론의 칭찬을 덧붙인다. “이 친구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주는 외국인 근로자 모범사원상을 두 차례 받았어요.” 그 상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동료들의 칭찬에도 슈크론의 표정은 한결 같이 차분하다.

“한국어가 많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빨리 빨리 하고 싶는데 인도네시아는 빨리 빠리가 없어요.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히 하고 있어요.”

한국행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으로 오기 전 고국에서 사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하고 그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 韓国で白い雪を初めて見たんです

インドネシアのジャワ島プカロンアンで、TVだけで見ていた大韓民国に来たのは、二人の兄の影響が大きい。彼は5男4女の末っ子。彼の二人の兄は、安山で働いた経験がある。彼は自然と兄の後を追って韓国に来た。二人の兄は現在、インドネシアの故郷でバティック(インドネシアの伝統服)を作る仕事をしている。結構収入の良い仕事だ。シュクロンさんにもやはり将来の夢がある。“最初に韓国に来たとき、春があつていいなと思ったんです。そして冬もあつて雪まで降る、良いですよ。雪は、韓国に来て初めて見たんです。”

イスラム教徒である彼は、豚肉を食べないため食品を選ぶのが容易ではない。そのため彼は、会社の寮で一日三食すべて手作りで食べている。また平日には



現場での溶接などの作業をしている。 현장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October 10, 2014 • DASARANG

一生懸命働いて、休日になるとガールフレンドと一緒に韓国での思い出作りにも励んでいる。“月尾島にも行って、釜山にも行って、加平にも行って来たんです。”と彼は恥ずかしそうに笑う。

彼はガールフレンドのユリヤティさん(27)と、故郷に帰って結婚する予定だ。シュクロンさんとユリヤティさんは、他国で互いに頼り合い慰め合っている。シュクロンさんは仁川で、故郷の女性をガールフレンドにする幸運を得た。彼はガールフレンドについて話しながら、幸せいっぱいだ。インドネシアから来た男性労働者は、現在370人余りであるのに対し、女性労働者は10人にも満たない。

二人は運命のように、Facebookで知り合った。お互いの会社の位置も近く、自然と恋人に発展。今では二人は同じ夢を見ている。“ガールフレンドは、韓国のトッポッキ、おでん、天ぷら、焼き鳥が好きなんです。おそらくインドネシアプカロンアンで、私たち、‘屋台の食べ物’を売っているかも知れませんよ。ガールフレンドがそれを望んでいるんです。”

2018年第18回アジア競技大会は、イン



シュクロン(Shukron)さんの出勤カード シュクロンの出勤カード

ドネシアのジャカルタで開かれる。同じジャワ島にあるプカロンアンは、ジャカルタからあまり遠くない。彼は、インドネシアに行く機会があれば、‘スマラン’と‘ソルル’には、ぜひ行ってみよう推薦した。‘スマラン’は、屋台の食べ物をたくさん売っていて、‘ソルル’は、東大門のように沢山の服があるとの説明。

落ち着いて恥ずかしがり屋のシュクロンさんが、溶接装置を持ち上げる。巨大な配管が彼の手で溶接されていく。赤い炎が作業マスクをした彼の顔に容赦なくはねかえる。しっかりと実った揺らぎない彼の本音は、彼が触れている丈夫な鉄とどこどなく似ている。

#### 韓国에서 하얀 눈을 처음 봤어요

インドネシア 자바섬 페카롱간에서 TV로만 보던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은 두 형의 영향이 크다. 그는 5남 4녀 중 막내다. 그의 두 형은 안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자연스레 형들의 뒤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 두 형은 현재 인도네시아 고향에서 바틱(인도네시아 전통 옷) 만드는 일을 한다. 제법 수입이 좋은 일이다. 슈크론도 역시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봄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겨울도 있고 눈이 있어서 좋았어요. 눈은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이슬람교도인 그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음식 먹기가 수월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는 회사 기숙사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손수 만들어 먹는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휴일이면 여자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의 추억도 만든다. “월미도에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평도 가



가ールフレンド의 쿠리아티(Juliyati)さんと外国人労働者のハンマウム체육대회에서 여자친구 율리아띠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요.” 그가 수줍게 웃는다.

그는 여자 친구 율리아띠(27)와 고국으로 돌아가 결혼할 예정이다. 슈크론과 율리아띠는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안이 된다. 슈크론은 인천에서 고국의 여성을 여자 친구로 사귀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여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남자 근로자는 현재 370여명인데 비해 여자 근로자는 10명도 안된다. 둘은 운명처럼 페이스북에서 만났다. 회사의 위치도 가까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둘은 이제 같은 꿈을 꾀다. “여자 친구는 한국의 떡볶이, 오뎅, 튀김, 꼬치구이를 좋아해요. 아마도 인도네시아 페카롱간에서 둘이 ‘길거리 음식’을 팔지도 몰라요. 여자 친구가 그걸

원해요.”

2018년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같은 자바섬에 있는 페카롱간은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가면 ‘스마랑’과 ‘솔루’에 꼭 가보라고 추천한다. ‘스마랑’은 길거리음식을 많이 팔고 있고 ‘솔루’는 동대문처럼 많은 옷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차분하고 수줍은 많은 슈크론이 용접 기구를 든다. 거대한 배관이 그의 손에서 용접된다. 붉은 불꽃이 작업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로 마구 튕다. 단단하게 영근 그의 속마음은 그가 만지는 단단한 쇠와 닮은 것 같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편집장·

gem0701@hanmail.net



伝統をつなぐ仁川の手/大芩

## 風を切り裂く、ソンの樂器

### 바람을 가르는 선비의 악기 '대금'

大芩は、韓国の伝統管樂器。6つのジゴン(穴)と、チョンゴン1つ(穴)で、揺れるように静かで深い風の音色をこの世に吹き放つ。優雅さと上品さを象徴する大芩は、ソンの樂器として知られている。統一新羅時代の代表的な樂器であるサムヒョン(コムゴ、カヤグム、ヒャン琵琶)と、サムジュク(大芩、中芩、小芩)の中の一つ。良い大芩を作るためには、材料の選択から誠魂を込めなければならない。真冬を過ぎた竹を採取し、3、4年の間、日陰でしっかりと乾燥させた後、塩水に漬けて再び乾燥させ、エゴマ油に漬ける作業を繰り返す。時間と共に硬くなった竹の中を空にし、初めて大芩として誕生。伝統的な方法を生かして大芩を作成する方は、仁川市無形文化財・6号であるイム・ギョンベ大芩匠。大芩作成のプロセスと、その深い音色を聞いてみたければ、仁川無形文化財・伝授教育館を訪れてみよう。先月9月に開館したここでは、大芩だけでなく、国家指定・重要無形文化財と、仁川市・指定無形文化財指定の30種目のうち、江華島所在を除く、24種目が入居している。

대금은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다. 6개의 지공(구멍)과 청공 1개(구멍)으로 흔들리듯 고요하고 깊은 바람소리를 세상에 풀어 놓는다. 우아함과 품위를 상징하는 대금은 선비들의 악기로 통한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악기인 삼현(거문고, 가야금, 향비파)과 삼죽(대금, 중금, 소금) 중의 하나다. 좋은 대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선택부터 공을 들여야 한다. 한겨울을 지낸 대나무를 채취해 3, 4년 그늘에 바짝 말린 뒤 소금물에 절이고 건조시킨 후 들기름에 절이기를 반복한다. 시간으로 단단해진 대나무의 속을 비우고서야 비로소 대금으로 태어난다. 전통방식을 살려 대금을 만드는 이는 인천시무형문화재 6호 임경배 대금장이다. 대금 만드는 과정과 그 깊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가면 된다. 지난 9월에 개관을 한 이곳에는 대금뿐만이 아니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30개 종목 중 강화도 소재를 제외한 24개 종목이 입주해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편집장· gem0701@hanmail.net



# 仁川とカリフォルニアの‘紅葉の秋’

## 인천과 캘리포니아의 ‘단풍지는 가을’

仁川大公園 인천대공원



季節が変わって、葉っぱも変化を準備する。秋は1年の中で、外出客が最も混雑する時期だ。葉っぱは誇らしげに自分の色を自慢し始めた。きれいに染まった紅葉が誘惑する。紅葉盛りの秋、私は仁川大公園を訪れた。公園の入り口から色とりどりの道が長く繰り広げられた。その瞬間、カメラを持ち上げていた。一歩ずつ、仁川大公園の中に入っていけばいくほど、私はカリフォルニア州の紅葉が思い出された。

カリフォルニアには、国や州で保護している公園が多い。宝物のように保護された国立公園の自然環境は、とてもよく保存されている。紅葉や自然環境からして、カリフォルニア州北部地区と仁川とは、大きな差はない、しかし異なった点も大いにある。それは、カリフォルニア国立公園は、自然環境の保存に集中しているのに対し、仁川大公園は、その他楽しむことのできる点が多い点だ。

公園を訪れた多くの人が、それぞれの好みで良い時間を過ごす。仁川大公園は、一晩キャンプのロマンを楽しめたり、ゆったりとした午後の散歩も楽しむことができる。小さな湖、植物園、キャンプ場、公演場、そして運動場まで、大切な人々と週末を過ごすのに最適どころだ。また自転車を借りて公園を一周し、自然を満喫することもできる。それに友達とバスケットボールの試合をしてもいい運動場まである。

週末も忙しいこの頃。しかし、仁川大公園は、貴重な週末を過ごすのに十分な価値のある場所。そこで過ごす一日、あるいは半日の時間は、一生の思い出づきとなってくれるだろう。冬が来る前に、仁川大公園の紅葉は見逃してはならない観光スポットの一つだ。

週末も忙しいこの頃。しかし、仁川大公園は、貴重な週末を過ごすのに十分な価値のある場所。そこで過ごす一日、あるいは半日の時間は、一生の思い出づきとなってくれるだろう。冬が来る前に、仁川大公園の紅葉は見逃してはならない観光スポットの一つだ。

季節が 바뀌고, 나뭇잎도 변화를 준비한다. 가을은 1년 중 나들이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나뭇잎들은 보란 듯 자기의 색을 자랑하고 나섰다. 곱게 물든 단풍이 그들을 유혹한다. 단풍이 한창인 가을, 나는 인천대공원을 찾았다. 공원입구에서부터 울긋불긋한 길이 길게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한걸음씩 인천대공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난 캘리포니아의 단풍이 생각났다.

캘리포니아엔 국가나 주에서 보호하는 공원이 많다. 보물처럼 보호되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이 아주 잘 보존돼 있는 곳들이다. 단풍이나 자연환경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과 인천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에 집중돼 있다면, 인천대공원은 이밖에도 즐길 것들이

많은 점이다. 공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천대공원은 하룻밤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도, 나른한 오후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곳이다. 작은 호수, 수목원, 캠핑장, 공연장, 그리고 운동장 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주말을 보내기 안성맞춤이다. 자전거를 빌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농구 환관을 해도 좋을 운동장도 있다.

주말조차 바쁘게 지내는 요즘이다. 하지만 인천대공원은 소중한 주말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곳에서 보내는 하루 혹은 반나절의 시간은 평생의 추억이 되어준다. 겨울이 되기 전, 인천대공원의 단풍은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중 하나다.

글: 다니엘 와이머  
文: 다니엘 와이머



### 歩いてみようかな?

#### 仁川植物園

暖かい日差しと涼しい風、散歩に良い日より。短い時間でも秋の趣きを感じてみたいなら、仁川大公園の仁川植物園ほどの名所は他にないはず。都心から少しはずれた仁川植物園の7万7千坪には、1,065種の植物が息づいている。道に沿ってずっと歩いていくと、一時間足らずの散歩コースだ。植物園の入り口に位置

する訪問客案内所では、草履を貸し出したり、体験プログラムの申し込みができる。草履と共に秋の落ち葉を踏みながら、悠悠々自適の散歩を楽しんでみてはいかが？

- 休業  
毎週月曜日、元旦、旧正月・旧盆の連休
- 利用時間  
午前10時～午後6時(11~12月は、5時まで)

#### 걸어볼까? 인천 수목원

따듯한 햇볕과 선선한 바람,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 짧은 시간에도 가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고 싶다면 인천대공원의 인천수목원 만한 곳이 없다. 도심에서 살짝 비껴난 인천 수목원엔 7만 7천여 평에 1065종의 식물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길을 따라 쪽 걸으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코스다. 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탐방객안내소에서 쉼터를 빌리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쉼터와 함께 가을 낙엽을 밟으며 유유자적 거닐어 보자.

- 휴무 : 매주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
- 이용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11~12월은 5시까지)



#### 自然学习到最適な場所, 仁川大公園

仁川大公園は、市民のヒーリングの場所であり、体験学習の場。熱帯・亜熱帯の植物やサボテン・多肉植物が展示された温室は、寒い時、子供連れの観覧に最適だ。春になると赤や黄色のバラでい

っぱいの‘バラ園’も見られる。体験学習の機会を持ちたいなら、‘環境未来館’まで行ってみよう。自然と環境問題や、将来の自然環境までも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他にも子供動物園、湖、湿地園など、子供たちと共に行動のいい学習場所がいっぱいだ。

#### 自然학습 최고의 장소,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은 시민들의 힐링장소이자 체험 학습장이다. 열대·아열대 식물과 선인장·다육식물이 전시된 온실은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과 둘러보기 좋다. 봄이면 빨갛고 노란 장미가 가득한 ‘장미원’도 볼 수 있다. 체험학습을 마음먹었다면 ‘환경미래관’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 자연과 환경문제, 미래의 자연환경까지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동물원, 호수, 습지원 등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학습장소가 가득하다.

- 문의 : 032-466-5880

글: 사진 차지은 기자  
文: 写真 - 차·지은(차지은)기자 - minsable@hanmail.net

# 西欧文化会館 文化がある日

## <公演場 2時のデート - チャイコフスキー 3大バレエ ガラショウ>

서구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장 2시 데이트 -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갈라 쇼>



チャイコフスキーの3大バレエの名作に、同時に会える機会がやってきた。‘白鳥の湖’、‘くるみ割り人形’、‘眠れる森の美女’のハイライトが、再構成され舞

台にお出まし。‘眠れる森の美女’の猫ダンス、青い鳥などや、‘白鳥の湖’の4匹の白鳥、グランパドドゥなどで構成され、‘くるみ割り人形’の中では、スペイン、ロシ

ア、中国など、様々な国の踊りで構成され、雪の妖精たちの群舞も圧倒的。観客の理解を促すための解説や、バレエの動作とパントマイムなどの体験時間も設けられている。普段接するのが大変で、やや退屈に感じられるバレエ公演の再振付を通じて、クラシックバレエが持つ最高の美しさをプレゼントしてくれることだろう。

- 日時: 10月29日(水)午後2時
- 場所: 西区文化会館大ホール
- 入場料: 感動後払い分ち合い愛チケット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명작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의

하이라이트가 재구성돼 무대에 오른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고양이 춤, 파랑새 등과 ‘백조의 호수’의 4마리 백조, 그랑 파드되 등으로 꾸며지며, ‘호두까기 인형’ 중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춤으로 구성된 스노우 요정들의 군무 또한 압권이다.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발레동작 및 마음 등을 배워보는 시간도 갖는다. 평소 접하기 힘들고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발레공연의 재안무를 통해 클래식 발레가 갖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 일시: 10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입장료: 감동후불제 나눔 사랑 티켓

## Schedule October

### 10.18 샌드아트



励まし、痛み、涙の中の希望など、砂で表現されているさまざまな感情の一つのストーリーにし、成功のための仁川APGヘメッセージを伝える。

격려, 아픔, 눈물 속 희망 등 모래로 표현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삼아 성공적인 인천 APG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日時: 10월 18일(土) 午後2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小公演場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무료

### 10.19 APG成功開催‘愛の音楽会’



国際障害者文化交流協會の‘愛の音楽会’は、発達、肢體、視覚などの障害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誰よりも増して素敵な演奏を聞かせてくれるメンバーの美しい旋律は、舞台を感動ストーリーにしてくれるはず。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사랑의 음악회’는 발달, 지체, 시각 등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단원들의 아름다운 선율은 무대를 감동스토리로 만들 것이다.  
 日時: 10월 19일(日) 午後5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大ホール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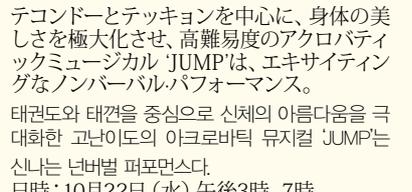
### 10.21 테콘드-뮤지컬 TAL



伝統武術であるテコンドーと、美しい韓国舞踊、B-Boyとパーカッション演奏のコラボレーションを披露テコンド-ミュージカル‘TAL’は、広州アジア競技大会閉幕式で公演された。

전통무술인 태권도와 아름다운 한국 무용, 비보잉과 타악연주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태권도 뮤지컬 ‘TAL’은 지난 광주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공연되기도 했다.  
 日時: 10월 21일(火) 午後3時, 7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大ホール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21일(화) 오후 3시,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무료

### 10.22 ノンバーバルパフォーマン



テコンドーとテッキョンを中心に、身体の美しさを極大化させ、高難易度のアクロバティックミュージカル‘JUMP’は、エキサイティングなノンバーバルパフォーマンス。

태권도와 태견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 뮤지컬 ‘JUMP’는 신나는 넘버벌 퍼포먼스다.  
 日時: 10월 22일(水) 午後3時, 7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大ホール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22일(수) 오후 3시,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무료

### 10.22 障害者バンドの音楽コンサート

障害者と健常者のみんなに、希望と感動の時間をプレゼントする有名障害アーティストのミニコンサート。音楽を通じて、2014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の開催を祝う、楽しさが舞台いっぱい溢れる。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유명 장애예술인의 미니콘서트이다. 음악을 통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흥겨움이 무대 가득 채워진다.  
 日時: 10월 22일(水) 午後3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小公演場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22일(수)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무료

### 10.23 콘서트 ‘한빛예술단’

視覚障害者で構成された‘한빛예술단’は、弦楽器、木管楽器、ピアノで構成された伝統的なクラシック演奏団体、クラシック音楽から現代音楽まで、多様なジャンルを奏でる。特に、視覚障害者の英才バイオリニスト、キム・ジソンの演奏は、観客の目と心をひきつけること間違いなしだ。

시각장애인만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은 현악기, 목관악기, 피아노로 구성된 전통 클래식 연주단체로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의 연주는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日時: 10월 23일(木) 午後7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大ホール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23일(목) 오후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무료

### 10.23 마직컬쇼



バブルと魔法が相まったフュージョンバブルマジックショーでは、常に舞台の上で作られる神秘的で不思議なシャボン玉と、超大型シャボン玉で、一時も視線を離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

버블과 마술이 합쳐진 퓨전버블매직 공연으로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신비하고 기이한 비누방울과 초대형 비누방울은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日時: 10월 23일(木) 午後3時  
 場所: 仁川綜合文化芸術會館小公演場  
 チケット: 無料  
 일시: 10월 23일(목)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무료

### 10.23 人、心、風景展



開店17周年目を迎えた新世界百貨店は、開店記念として、デパート5階にあるギャラリーにて‘人、心、風景’写真展を開催。今回の展示会のキーワードは、仁川の風景、人、暖かい心、共鳴、思い出など。キム・ボソプ、イ・ヨンウク、ユ・ドンヒョンなど、地域内で着実に‘仁川の姿を、さまざまな角度からカメラに収めている作家たちが参加。

신세계백화점은 개점 17주년 기념으로 ‘사람, 마음, 풍경’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의 키워드는 인천의 풍경, 사람, 따뜻한 마음, 교감, 추억 등이다. 김보섭, 이영욱, 유동현 등 지역 내에서 꾸준히 인간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한다.  
 日時: 10월 23 - 12월 1일  
 場所: 新世界百貨店 仁川店 5F 新世界ギャラリー  
 일시: 10월 23일(목) ~ 12월 1일(월)  
 장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5F 신세계갤러리

# 情熱の波、これからが始まりだ

##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仁川の空に聖火が再び活発に燃え上がる。2014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が、来る10月18日から10月24日までの7日間、仁川市一帯で開かれる。アジア42カ国の6,000人(選手4,500、役員1,500人)が参加、23種目(パラリンピック種目、19個+非パラリンピック種目4)で熱戦を繰り広げる。障害者競技大会は、スポーツの試合を通じた障害者の自立精神のリハビリ、また地域の障害者のためのコミュニティの理解度を高める。障害者と健常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介し、一味違った感動と配慮、そして調和を見せてくれるだろう。

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の母胎は、極東南太平洋身体障害者スポーツ大会(FESPIC)だ。第1回FESPICは、1975年、日本の大分で開催された。1982年以来、大会は夏季パラリンピック開催年度の中間年に開かれている。

인천 하늘에 성화가 다시 활활 타오른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인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선수 4천5백명, 임원 1천5백명)이 참가해 23개 종목(패럴림픽 종목 19개 + 비패럴림픽 종목 4개)에서 열전을 벌인다. 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포츠 경기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정신과 재활,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을 통해 색다른 감동과 배려 그리고 화합을 보여 줄 것이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모태는 극동·남태평양신체장애인스포츠대회(FESPIC)이다. 1회 FESPIC는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되었다. 1982년 이래로 대회는 하계장애인올림픽 개최년도 중간 해에 열리고 있다.

차지은 기자

ジョ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 2014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の競技種目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 종목



No. 回次	開催種目 개최종목	競技場名 / 位置 경기장명 / 위치	No. 回次	開催種目 개최종목	競技場名 / 位置 경기장명 / 위치
1	車椅子 ダンススポーツ 휠체어댄스스포츠	江華ドルメン体育館 강화고인돌체육관 仁川市江華郡 江華邑 江華大道603、観覧席 4,014席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관람석 4천14석	13	卓球 탁구	松島グローバルキャンパス体育館 송도글로벌캠퍼스체육관 仁川市延寿区松島文化路 119、観覧席 1,643席、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관람석 1천643석
2	陸上 육상	仁川アジアード主競技場 인천아시아드경기장 仁川市西區烽燧台 806、観覧席 61,914席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806, 관람석 6만1천914석	14	5人制サッカー 5인제 축구	仙鶴ホッケー競技場 선학하키경기장 仁川市延寿区キョンウォン大路 526、観覧席 5,101席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관람석 5천101석
3	アーチェリー 양궁	桂陽アシアードアーチェリー競技場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仁川市桂陽区ボンオ通り 855(瑞雲洞111)、観覧席 1,181席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서운동 111), 관람석 1천181석	15	車いすラグビー 휠체어 럭비	仙鶴体育館 선학체육관 仁川市延寿区キョンウォン大路526、観覧席 2,033席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관람석 2천033석
4	バドミントン 배드민턴	桂陽体育館 계양체육관 仁川市桂陽区ボンオ通り 855(瑞雲洞111)、観覧席 4,304席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서운동 111), 관람석 4천304석	16	ボチア 보치아	南洞体育館 남동체육관 仁川市南洞区ソレ路 500、観覧席 8,571席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관람석 8천571석
5	サイクル 사이클	仁川国際ベロドローム 인천국제벨로드롬 仁川市桂陽区ボンオ通り 855、観覧席 1,508席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관람석 1천508석	17	7人制サッカー 7인제 축구	南洞アシアードラグビー競技場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仁川市南洞区ソレ路 540、観覧席 4,968席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40, 관람석 4천968석
6	車椅子 バスケットボール 휠체어농구	三山ワールド体育館 삼산월드체육관 仁川市富平区体育館路 60、観覧席 7,220席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관람석 7천220석	18	サイクル 사이클	松島道路サイクル 송도도로사이클 仁川市延寿区松島洞一帯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
7	シッティング バレーボール 좌식배구	松林体育館 송림체육관 仁川市東區塩田路 30、観覧席 5,200席 인천시 동구 염전로 30, 관람석 5천2석	19	ゴルフ 골프	仙鶴国際氷上競技場 선학국제빙상경기장 仁川市延寿区キョンウォン路 526 (仙鶴洞)、観覧席 3,011席 연수구 경원대로 526(선학동), 관람석 3천11석
8	車いすテニス 휠체어테니스	ヨルウムル・テニス競技場 열우물테니스경기장 仁川市富平区ヨルウムル路 164、観覧席 3,510席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관람석 3천510석	20	ロンボル 론볼	仁川大公園ロンボル競技場 인천대공원론볼경기장 南洞区ミネミロ 236番道 (長寿洞)、観覧席 132席 남동구 무네미로 236번길(장수동), 관람석 132석
9	ヨット 요트	ワンサンヨット競技場 왕산요트경기장 仁川市中區ウルファン洞 山 143-1番地 인천시 중구 울양동 산 143-1번지	21	重量挙げ 역도	タルビツ祭り・庭重量挙げ競技場 달빛축제정원역도경기장 仁川市延寿区セントラル路 340、観覧席 300席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340, 관람석 300석
10	柔道 유도	桃園体育館 도원체육관 仁川市中區サットゴル路 41番道 10、観覧席 2,667席 인천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관람석 2천667석	22	漕艇 조정	河南ミサリ漕艇競技場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京畿道河南市ミサ大路 505、観覧席 468席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석 468석
11	射撃 사격	オクリョン国際射撃場 옥련국제사격장 仁川市延寿区ドクベ路 172番道 142、観覧席 1,337席 인천시 연수구 독베로 172번길 142, 관람석 1천337석	23	ボウリング 볼링	安養虎溪体育館 안양호계체육관 京畿道安養市東安區クィン路 80番地 52、観覧席 105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지 52, 관람석 105석
12	水泳 수영	文学朴泰桓水泳場 문학박태환수영장 仁川市南区メソホル路 618、観覧席 3,600席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18, 관람석 3천6석	24	車いすフェンシング 휠체어펜싱	松島グローバル大学公演場 송도글로벌대학공연장 仁川市延寿区松島文化路 119、観覧席 389席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119, 관람석 389석

# 風変わりな姿、格別の感動

색다른 모습, 각별한 감동



## 골볼

골볼은,音のでるボールを利用し、相手チームのゴールにボールを入れる競技だ。試合は、両チームがそれぞれ三人で進行され、ボールはゴム材質で、ボールの中に鈴が入っていて、転がっていく方向と速度だけを推測できる。選手たちは、障害等級に関係なく、同等の条件で試合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アイパッチ(目隠し)とアイシェード(ゴーグル)を必ず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골볼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다. 경기는 두 팀이 각각 세 명의 선수로 진행하며 공은 고무 재질로 만들어지고 공안에 방울이 들어있어 굴러가는 방향과 속도만 짐작 할 수 있다. 선수들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기에 임해야하기에 아이패치(눈가리개)와 아이쉐이드(고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5人制의視覚障害者サッカー

ゴールキーパーを除く選手たちは、アイパッチと眼帯を着用したまま試合に臨む。特別に考案されたボールには鈴が入っていて、選手たちは、音を通じて動きを捉える。規定は、フットサルのルールが適用されるが、ファウルを累積適用させる規律があり、バスケットボールのファウルとも似ている。

## 5인제 시각축구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들은 아이패치와 안

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한다. 특별히 고안된 공은 방울이 들어있어 선수들은 소리를 통해 움직임 포착한다. 규정은 풋살 규칙이 적용되나 파울을 누적 적용하는 규율이 있어 농구의 파울과도 유사하다.

## 車椅子ダンススポーツ

ラテン、スタンダードの2つの種目に分かれ、障害-健常者コンビ、障害者-障害者デュオ競技で進行。障害者スポーツの中で、唯一非障害者が選手となって参加できる種目で、コンビ種目は、障害者と非障害者が同じ条件で大会に参加するため、パートナー間の調和が重要となる。

## 휠체어댄스스포츠

라틴, 스탠드 등 2개 종목으로 나뉘며 장애인-비장애인 콤비, 장애인-장애인 듀오 경기로 진행된다. 장애인스포츠 중 유일하게 비장애인이 선수가 되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콤비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하기에 파트너 간 조화가 중요하다.

## ボチア

投げた的球に近い球の数がスコアになり、ボールを投げたり、転がす方法は、どうやっても可能。とったり投げた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スパウトを利用して、転がしてゲームをすることもできる。テニス競技のように多くの観客が観覧することができ、選手がボールを投げるときは、静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보치아

던져놓은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잡거나 던질 수 없는 경우 흡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 테니스경기처럼 많은 관중이 관람할 수 있으며, 선수사 공을 던질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

## 7人制脳性麻痺者サッカー

一般のサッカーは、フィールドで11人が走るが、脳性サッカーの場合、7人で戦いを繰り広げる。ドローイングは片手で転がすことができ、手で投げるやいなや地面につかなければならない。オフサイドの規定は適用しない。非障害者に比べてやや遅いが、ボールをドリブルしてパスする姿に違いがあるため、観客に興味と感動を与える。

## 7인제 뇌성축구

일반축구는 필드에서 11명이 뛰지만 뇌성축구는 7명이 경기를 펼친다. 드로잉은 한손으로 굴릴 수 있으며 손으로 던지자마자 땅에 닿아야 한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는 모습이 달라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준다.

## 롤펀볼

屋外の正方形芝球場で、白の丸いボール(的球、ジャック)を置き、4つのボールを投げ、的球に近いほど高得点を獲得。普段は友情を深め、楽しむ遊びだが、競

技の時には、戦略看破のため、集中力を高めることが要求され、相手を尊重し、礼儀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紳士的な競技。

## 롤펀볼

야외의 정사각형 잔디구장에서 흰색의 둥근 공(표적구, 잭)을 놓고 4개의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평소에는 우의를 다지며 즐기는 놀이지만 경기시에는 전략간파를 위해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신사적인 경기다.

차지은 기자

쥬원(차지은)기자minsable@hanmail.net

1	4	6
2	3	5
		7

1. 골볼골볼
2. 5인제의視覚障害者サッカー 5인제 시각축구
3. 車椅子ダンススポーツ 휠체어 댄스스포츠
4. 보치아 보치아
5. 車椅子バスケットボール 휠체어 농구
6. 車いすテニス 휠체어 테니스
7. 롤펀볼 롤펀볼

# 今、仁川は

## 지금, 인천은

### 仁川市 10大 核心課題発表



ユ・ジョンボク仁川市長が、就任100日を迎え、先日6日、仁川市の10大核心課題を発表した。市庁の大会議室で開かれた記者会見で、民選6期仁川市のビジョン ‘仁川の夢、大韓民国の未来’を実現させる、10大課題を明らかにした。

10大課題は、▲仁川ビジョン2050 将来の発展計画 樹立 ▲強力な財政改革の推進 ▲航空・観光・ロボット

バイオなど、8つの戦略事業の重点育成 ▲‘ヨウコ(中国観光客)’のマーケティングにミラクル仁川経済の実現 ▲仁川中心の交通改善プロジェクトの実施が選定された。また、▲仁川経済自由区域の規制緩和モデル地区指定の推進 ▲持続可能なウォンドシム成長動力の創出 ▲住みたい緑の環境都市づくり ▲グローバル教育都市としての飛躍 ▲江華島、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の登録推進などの、10大課題も含まれている。

ユ市長はこの席で、“就任したあの日、あの最初の気持ちを忘れず、新しい仁川の価値創造のため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約束した。

### 인천시 10대 핵심과제 발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일 인천시의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6기 인천시의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할 10대 과제를 밝혔다.

10대 과제는 ▲인천 비전 2050 미래발전계획 수립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항공·관광·로봇·바이오 등 8대 전략사업 중점 육성 ▲‘요우키(중국관광객)’ 마케팅으로 미라클 인천경제 실현 ▲인천 중심의 교통개선 프로젝트 시행이 선정되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추진 ▲지속 가능한 원도심 성장동력 창출 ▲살고 싶은 녹색환경 도시 조성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강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하던 그날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인천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仁川環境公園、モンゴルの学生を招待

仁川環境公園は、9月29日から4日間、モンゴル・ウランバートル・ナライ小学校(Nalaih district 109 School) 教師と生徒3人、そして環境公務員1人を招待し、環境体験を実施した。彼らは、仁川環境公園の下水・焼却・食べ物処理など、環境基礎施設見学をはじめ、松島新小学校の授業参観、仁川市立博物館など、仁川管内の歴史と文化施設を探索した。仁川アジア競技大会を迎え、モンゴル国内の選手が参加したボクシングとレスリングの試合を見て応援もした。

仁川環境公園は2008年から継続的に ‘モンゴル・仁川希望の森づくり植樹’、及び植林基金の支援などを通じ、砂漠化防止と黄砂低減のため、積極的な環境社会貢献活動を行っている。

### 인천환경공단, 몽골 학생 초청

인천환경공단은 9월 29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 나라이 초등학교(Nalaih district 109 School) 교사 및 학생 3명 그리고 환경공무원 1명을 초청하여 환경체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인

천환경공단의 하수·소각·음식물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송도신정초등학교 수업 참관, 인천시립박물관 등 인천 관내 역사와 문화시설을 탐방했다. 인천아시아게임에 맞아 몽골 자국선수들이 참가한 복싱과 레슬링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몽골 인천희망의 숲 조성 나무심기’ 및 식림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市議會、自活現場民生ツアー

仁川広域市議會・文化福祉委員会は、10月1日委員長室で、‘自活現場の民生ツアー’の発足を開催。これにより、市議會・文化福祉委員会所属の議員たちは、10月6日と10日の両日に渡り、6つの地域自活センターで自活現場の民生ツアーを体験した。桂陽自活の学校清掃事業団、南区自活の資源リサイクル事業団などで現場を体験しながら、自活参加住民の受益者たちに出会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時間をとった。

イ・ハンク文化福祉委員長は、“今回の自活体験は、低所得層が暮している現場の中で、受給者が希望している福祉政策が何なのか、彼らの悩みを分かち合う良いきっかけとなった。”と、述べた。

### 시의회, 자활현장 민생투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일 위원장실에서 ‘자활현장 민생투어’ 발대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6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현장 민생투어를 체험했다. 계양자활의 학교 청소사업단, 남구자활의 자원재활용사업단 등에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활 참여 주민과 수혜자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자활체험은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급자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 選手村内の医療観光広報館の運営

T仁川医療観光財団は、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期間中、選手村内において医療観光広報館を運営し、仁川医療インフラと医療観光を紹介し、大きな成果を収めた。医療観光広報館はICC(Incheon Cardiovascular Cluster:仁川心脳血管クラスター)ゾーン・脊椎・関節ゾーン・皮膚形成ゾーン・健康診断ゾーン・歯科・眼科ゾーンなど、5つのゾーンで構成され、外国人選手及び、関係者がさまざまな医療が体験できるように構成した。今回の医療観光広報館では、毎日平均50人以上の人たちが訪れ、累積訪問者が500名を超えた。

### 선수촌 내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선수촌 내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인천 의료 인프라 및 의료관광을 소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관광 홍보관은 ▶ ICC(Incheon Cardiovascular Cluster:인천 심뇌혈관 클러스터)존 ▶ 척추·관절존 ▶ 피부성형존 ▶ 건강검진존 ▶ 치과·안과존 등 5개 존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선수 및 관계자가 다양한 의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의료관광홍보관에는 매일 평균 50명이 넘는 인원이 찾아 누적 방문객이 500명이 넘었다.

차지은 기자

쥬쥬(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 仁川市 多文化関連機関 連絡先

###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 仁川市役所 多文化政策課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仁川広域市 南洞区 九月洞 1135-11パークアベニュービル7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아베뉴빌딩 7층

#### 中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仁川広域市 中区 ジェムリヤン路 122 番洞信用協同組合ビル4階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22동신협빌딩 4층

#### 桂陽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仁川広域市 桂陽区 桂陽山路 102番通り 5 社会福祉会館 3階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 南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仁川広域市 南区 キョンウォン(경원)大路 890 B25号 (朱安6棟, ポミリジュンビル)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 南洞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仁川広域市 南洞区 マンス6洞 チャンスン路 5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 富平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仁川広域市 富平区 キルチュ路 53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延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仁川広域市 延寿区 チョンヌン大路 109(탑피온빌4階)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 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仁川広域市 西区 ギョンミョン大路 693番通り 6 (公村洞 305-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 東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仁川広域市 東区 フアドジン路 44番通り 21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21

#### 江華郡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933-0980

仁川広域市 江華郡 江華邑 北門通り 11-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 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仁川広域市 南洞区 ノンヒョン洞 636-3 ミョンジンプラザ12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